

“기업인의 윤리의식과 공직자”

李 相 哲

現代社會研究所

정의사회 구현과 국민복지란 대 명제앞에 온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발전과 민족중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동의 고동소리와 함마소리가 이 사회의 온 천지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지금, 기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세는 그 어느때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자기 하나만의 생존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비리라도 서슴치 않는 사회적 부조리와 폐습이 이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민족의 중흥과 복지실현은 더욱 멀어질 뿐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구조적 파멸을 초래하고 기아와 질병속에 빠지고 말뿐이다.

얼마전 연탄업자들의 깜짝 놀라운 국민적 배신은 바로 우리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한 단면을 나타낸 것일뿐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본다.

기업인의 윤리의식이 결여된 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생명체인 신뢰가 사라질 뿐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기업의 파멸과 그 사회의 구조적 종말을 초래하고 말 것임은 명약관화 할 뿐이다.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국가적 중흥과 민족적 대단합의 계기를 구축하게끔 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신뢰속에 무궁한 발전을 약속하고 굳건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말것이다.

국제 원자재 값이 많이 내렸는데도 꿀먹은 벼어리같이 침묵만을 지키고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는 커녕 편법을 써가면서 가격의 인상을 펴하고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인의 윤리의식이 지금의 현실적 한 단면을 피부로 느낄때 서글픔이 앞을 가릴뿐이다.

원자재 값이 조금만 올라도 아우성을 치며 금세라도 기업들이 문을 닫을 듯이 발광하던 그들이건만 어느 품목은 50% 이상 가격이 하락된 지금, 무슨 상념속에 잠겨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고를 뿐이다.

기업인은 항상 공기업의 자세속에서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며 공존할 수 있는 보람된 길을 몇몇이 걸어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며 절약하여 저축하는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찬 소비자앞에 겸허하고 솔직한 윤리관을 확립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재미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벌같이 정성껏 벌어서 재미같이 선비처럼 먹고 사는 순리적 삶이 제일 좋다는 옛 공자의 말씀같이 모든 기업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시간과 규모가 공간적 효능이 지배하는 풍토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다 합심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대 전자 메이커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 자기들의 제품인 국산품은 보이지 않고 외제 칼라TV와 녹음기들이 자랑삼아 진열되어 있으며 이에대해 반문하면 그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구입했노라고 서슴없이 변명하는 그들이고 보면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고 본다.

그러고는 자기제품은 사용치도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그 우수성을 세계유명제품과 대등하다는 선전

속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부 기업인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가격인상이 있을 때마다 공직자를 찾아다니며 뇌물과 향연을 베풀며 비열한 방법을 일삼는 기업인들은 그 얼마나 많으며 경리장부를 싸들고 호텔을 찾아 다니면서 비밀장부를 조작하여 탈세를 일삼는 자 그 얼마이며, 생산원가를 거짓으로 보고하여 폭리를 일삼는 자 그 누구이며, 제품의 일부를 변경하여 가격을 조작하는 자 그 얼마나 되며, 불량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괴롭히며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가게 하는 자 누구들이란 말인가.

경기가 침체되면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며 반면에 경기가 회복되면 감언이설 속에 기능공들을 타사로부터 끌어 들이려는 대기업들의 그릇된 병폐는 그얼마나 있으며 일부 기업인들의 결여된 국가관 때문에 자기만이 살겠다고 온갖 수단방법의 조작속에 허물어져가는 민족혼은 그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한나라의 같은 기업들인데도 타국의 기업들과 조작과 포함속에 막다른 구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철면피한 일부 해외진출 기업들의 추태가 비일비재한 지금 우리들은 다시한번 마음의 자세를 재정립하여 후세에 부끄럼없는 민족의 긍지를 마련하는데 모든 힘을 경주하여야만 될 것이다.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성장은 자본, 시설, 경영인의 운영방법, 종업원들의 노력과 기술 등 4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인들은 자본, 시설경영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며 근로자의 기술과 노동은 한낱 종속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고 방식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에 연장된, 소비자를 경시하는 안하무인격인 태도가 바로 현실적 기업윤리의 그릇

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수출 드라이브에 일익을 담당한다해서 공해를 방출해도 관용될 수 있다는 관념이 이 사회의 너울진 구석을 차지하게끔 되었으며 더욱이 국민위생에 지대한 우려를 동반하고 말았으며 이를 알면서도, 자기 기업 하나만의 치부를 위해서 방관하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에 편승하여 기생하는 경영인 또한 부지기수일 뿐이다.

윤리의식을 튼튼히 구축하지 못한 치부의 축적은 로마멸망의 재판을 면치 못하듯이 그 기업은 국민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차츰 외면을 당하다가 결국은 매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기업인들은 과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겸손과 성실속에 이룩된 부유함을 이웃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간본연의 자세를 터득하는 일이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 결코 죄악이 아니라는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시간적 공간이 타인들로부터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기업윤리 의식이 정착하는 풍토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전전한 마음과 정신적 사고방식도 중요할 뿐더러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사라질줄 모르는 소비자들의 그릇된 의식도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 회복과 더 나아가서는 기업인과 그 종사자와 국민간에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의식구조를 개선하는데 정책적 배려와 이를 받아 들이는 상대적 터득속에 친근한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